발행인 박 숙 음
주 간 김 영 호
편집장 이 승 환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대학보사
TEL◎0135~9 (교환)
◎3751 (직통)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

외대학보

1969년 3월18일발행
제 135 호

Sister Paper in Foreign Languages The Argus

(1958 · 3 · 27 제3종우편물인가 · 허가번호 제라85호)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달엿점

면 신에 하얀 눈이 녹으면 3월은또다시 수많은 생명을 잉태한다. 연합새순의푸르름과 바쁘어 이른 『캠퍼스』에도 705명의 『캠퍼스』들이 탄생했다. 『진리 · 평화 · 창조』라는 고고의성을 버트리며……. 하나의 꿈틀임을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이라는 3월의 의미를엮지말고 오로지 성실과노력으로, 열매맺기위한 밑거름을 장만해야겠다. (박슬음학장에게 입학선서를 하는 신입생들)

<글 주명희기자 · 사진 주오석기자>

교과과정대폭변경

통합된 학습방법 시도

교련실시로 체육학점 반으로줄어

○……교육학부가 신설되고 외사학부가 법정, 상경학부로확……○
○……정원에 따라 교과과정일부가 대폭 변경되었고, 교련……○
○……과목의 신설로 체육학점수가 8학점에서 4학점으로……○
○……주는등 종래 학점제도의 상당한 부분이수정되었다. ……○

교과과정 상임위원연구실에서 밝힌바에의하면 1, 2학년의 교양영어에 총실음기하기위해 교육내용과 진도되평가방법을 통일시키, 말말 교수에리하 교재 내용이나 학습진도의 차이로생기는 폐단은 없에게 되었으며 교육내용의통일을 위해서 박명서교수의 편찬으로 교양영어교재가 발간되었다.

그리고 1학년의 교육내용에 종래의 교과본배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어학학습방법채택 『프랑스』 어과의경우 (시청각프랑스어과목으로 학어통합형 학습방법실시로하고있으며 (본보 133호에기보) 과명칭이 법경치행정과는 종전의 국제행정, 국제관계론등 이외전제된 과목을 삭감하고 행정학과 민권의관련된 과목 (일반관리, 행정학특강) 등이 보강되었고, 또한 경제과, 정외과, 법학과등도과명칭에 합당한 새로운과목이 추가되고있던 과목이 삭제되어 학점관계도 대폭 수정된것이다.

한편 교련과목의 신설로교련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가능학점이 166학점 ROTC수료자는 168학점, 기타여학생들은 160학점을 이수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3면에)

또한 문 연구실에서는 교과과정의 효과적운영을 위해 영어과등에 신임교수 12명을 채용, 교수진을 보강시켜 3월현재 전임교수와 외국인을 포함해서 67명, 강사가 109명으로 모합 176명의강사진을 보유, 학점수와의 비율이 11. 5대1로 나타났다고밝히고 『문교부기준에 비해서위험이지지 않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악강좌신설
이유선교수가담당

재학생들의 정서교육을 위한 음악과른 강좌가 중앙대학교 이유선교수의 담당으로 신설되었다.

매주 목요일 5, 6교시에 실시될 이강좌는 문화부 부전공과목으로 3, 4학년의선택과목에 포함되는데 전반50분은 이론을, 후반50분은강상시간을 갖는다.

새훕산즈 705명 탄생
1969년도 입학식마쳐

1969학년도 입학식이지난 3월5일 학오 2시 본대학 교정에서 열렸다.

평균 2 · 8대1이란 치열한 경쟁을 뚫어치고 전리 · 평화 · 창조의 기치아래 모인 705명의 신입생들은 이로써 『새세대의 역사를 창조하는』 『산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것이다.

박슬음학장은 비롯하여 많은학내의 인사들이 이들의 입학을 축복하는 식전에서박학장은 입학허가선언을 마친 후 훈사를통해 『앞으로 4년간 전리탐구와 최선을 다하여 인류역사에 기리 공헌할 수있는 인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식은 신입생대표 박관호군의 선서가 있은 다음 교수와 교직원 소개를 끝으로 성대히 막을 내렸다.

또한69학년도 신입생환영회 『오리엔테이션』 3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본대학 강의실에서 실시되었다.

6개의 반으로 나뉘어 실시된 『오리엔테이션』기간동안 신입생들은 교가, 도서관이용법, 『서클』활동, 병사훈련등4년간의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시받았다.

5월12일 중간고사
학사일정발표

3월1일, 개강한 본대학 1학기 학수과정을 보면 29일 2학기추가시험이있고4월에 들어서, 20일에 개교 15주년기념일, 성대한 기념축하제가 있다.

1학기 중간시험이 5월12일부터 17일까지, 1학기말시험이 7월7일부터 16일까지 또한 69학년도 후기 졸업생 추가 시험이 7월18일경에있을것이다.

염종규교에지급
불문동우회장학금

본 대학 『프랑스』 어과 졸업불문 구성된 불문동우회가 매년 성적이 가장 우수한 『프랑스』어과 재학생에게수여하는 불문동우회 장학금이 올해는 염종규교(4)에게주어진다.

동 장학금 전달식은 3월20일, 오후 1시에 거행될 예정이다.

4월말에발간
외대학보 4점

1962년도에 발간된 이래 빛을 보지 못하던 교지 『외대학보』 제4집이 4월말 혹경 발간예정으로 현재 편집중에있다.

대학원에서 편찬되는 『논문집』과 같은시기에 나올 이교지는 학생논문과 문예작품등을 위주로한 교양지 성격을 띠고 국판 300면으로 출간될것이다. 편집진은 다음과같다.

▲편집장=신현창 (G3)
▲편집위원=김한승 (E4), 윤승중 (E3), 김용태 (INA2), 우명희 (F2)

이상조교수 샹바르대사에 명예문박
우호증진과 문화발전에의 기여를 치하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이상조박사◇

지난2월27일주한 『프랑스』 대사 『샹바르』씨와, 전총학대학장 이상조교수에대한 명예문학박사수여식이 제12회 교부고등교육국장, 총학대학장을 역임한바있는 이상조박사는 평생, 정치에 관한다수의 책과논문을 저술한바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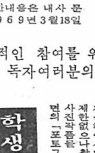
행정기구 이전
법관완공에따라

새학기로 맞아 각과장실과 사무실이 이전되었다.

법관이 신축됨에따라 그동안 본관2층과 신관2층에있던 법정, 상경학부과장실들이법관 2층으로, 신관 2층에 있던 부전공지도교수실들이 법관 2층으로 이전되고 대신 본관 2층에는 외국어학부과장실과 외국어교육학부과장실이, 신관 2층에는교수연구실이들어서게 된다.

한편 법관의 식당은 설비가 한바퀴는대로 곧 개장할 예정이다.

정병준교수도미
박사과정밟으러



65년도 『하와이』 대학에서 영문학을 연구한바 있는 정교수는 약 1년간 미로부터 『쉐익스피어연구』를 교부등교육국장, 총학대학장을 역임한바있는 이상조박사는 평생, 정치에 관한다수의 책과논문을 저술한바있다.

『말레지아』 문교상이 기증하는 서적 3,200권이 지난11일 주한 『말레지아』 대사 『슬탄』씨를통하여박슬음학장에게전달됐다.

한편상대(3)서기 평원 이날희기 중서에서 박학장은 『외대인들의 실력으로서 보답하리라』고 감사의 뜻을표했다. 이들서적은 본대학 개교15주년기념행사의 하나로거행될 『외국서적전시회』에 전시도 될것이며 11일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비롯한 15개국의서적들이 보내져 왔다

「말」정부서 도서기증
「외국서적전시회」에 출품

「업적제도」에 의해 연구교수로

「연구하는 교수」를 위해 본 대학이 7년부터 실시해온 교수연구업적제도가 올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다.

전임강사이상의 전 교수가 한번씩은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어있어 그동안 행정직책상 연기된면 학장, 각처장은 비롯한 14명의 금년도 연구교수가 선정됐다. 이들내외는 상반원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하고 일년간 연구기간을 두어 어연구논문을 발표하게된다.

한편 68년도 연구교수로선정된 11명의 연구는문은 4월말에 발간되는 개교 15주년 기념논문집에 실리게된다 69년에선정된 연구교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을음(E) ▲정종실(M) ▲이창호(E) ▲최의원(A) ▲김석주(E) ▲유정열(D) ▲김영훈(E) ▲알수산(L) ▲노동섭(C) ▲홍순태 ▲조용국(S) ▲성하현 ▲하인(I) ▲임진권

펠룹럼서 작가기금
이범선교수에

「제 · 쥴럼」 한국본부는 지난 3월 3일 이범선 본대학 문화부지도교수에게 「작가기금」 15만원을 주었다.

이 기금은 보다 좋은하고 좋은 작품을 낼수있기 위해서 매년 2회에 걸쳐 우리나라의 우수한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신입생지능검사
결과는 상담실서

본대학 『카운셀링 · 룸』에서는 69년도 신입생들의 전반적인자질을 조사하여 제학생들의 지도및효율성을도하기 해 IQ 『테스트』를 3월6일부터 3일간실시했다.

5월12일 중간고사
학사일정발표

3월1일, 개강한 본대학 1학기 학수과정을 보면 29일 2학기추가시험이있고4월에 들어서, 20일에 개교 15주년기념일, 성대한 기념축하제가 있다.

1학기 중간시험이 5월12일부터 17일까지, 1학기말시험이 7월7일부터 16일까지 또한 69학년도 후기 졸업생 추가 시험이 7월18일경에있을것이다.

4월말에발간
외대학보 4점

1962년도에 발간된 이래 빛을 보지 못하던 교지 『외대학보』 제4집이 4월말 혹경 발간예정으로 현재 편집중에있다.

대학원에서 편찬되는 『논문집』과 같은시기에 나올 이교지는 학생논문과 문예작품등을 위주로한 교양지 성격을 띠고 국판 300면으로 출간될것이다. 편집진은 다음과같다.

▲편집장=신현창 (G3)
▲편집위원=김한승 (E4), 윤승중 (E3), 김용태 (INA2), 우명희 (F2)

도서관장에이상조박사

교수진도 대폭 강화

전 충북대학장 이상조박사가 3월1일부로 본대학 도서관장으로취임하였다.

본대학 대학원에서 법학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은바있는 이박사는 『일본중앙대학법과졸업으로,서울대학교 법대교수 문교부 고등교육국장등을 역임하 있는데 앞으로 본대학에서 행정학등의 강의도맡게된다.

한편서 성하현 전 도서관장은 69학년도 신학기부터신설된 『교육학부장』으로 전임되었다.

한편 교무처에서 앞퍼전바에 의하면 신학기부터는 신임교수 12명을 채용, 발령하는등 상당수의 교수이동이있다.

이번 교수이동 상황을보면 『로트루갈』어과 과장에 김창수교수, 『이탈이아』 과장에 최봉표교수가 각각 임명되었고 전임교수로는 G과에 김태숙, 『슈미트』교수, V과에 『디엔』교수, P과에 『노갤리아』교수, T과에 박명호교수, 체육과에 김봉수교수, 경제과에 오창헌교수, 정외과에 박인교교수, 법률과에 김지수, 행정과에 이상조교수가 각각 발령되었으며, 그리고 영어과에 박순합, C과에 허세욱, R과에 『가라스노』, I과에 송인재, T과에남교수가, 국어는 성동주박사가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민속경연대회」등 다채롭게 계획

학생회 15주년기념행사일정 결정
작년도 결산 내용도 발표

본대학 학생회는 지난 3월13일 위원회를 열고 개교 15주년 기념행사의 일정을 세웠다.

4월20일 개교기념일을전후해서 약 1주일간 열릴 이번 행사는 예년에 비해 훨씬다채로울것으로 예상되는데 학생회는 재학생들의 많은 『아이디어』제공을 바라고있다.

행사기간동안에는 가능한한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참여하게 하기위해서, 오전수업만을 한것을 계획하고있는데 주요일정은 보면 각국민속경연대회, 서강대학을 비롯한성심여대, 서울여대등 초청경기 『포크 · 댄스』, 가면무도회, 『보렐』연주발표회, 명사초청강연회, 문학의 밤등 10여종 목의 행사가 있게된다.

그런데는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뜻에서 방송 음악회를 3월 18일 본관 107호실에서 갖고 25일에는 『나사 · 코리아나 빕』을 초청, 영어 손국을 가지며 27일에는 신입생과 타대학생들의 뜻이바는 제목의 교양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따라서 신입생환영 야유회는 오전4월초순 경 있게된다.

한편 지난 3월 17일에는 1968년도 제2학기 학생회비 결산보고 및 내역을 보았으는데 그 주요 내역을 보면, 모의 『올림픽』대회에 28만4천5백원 산하단체보조비 7만6천원모의 『유네』총회에 10만원등 84만6천60원으로 약 3만원이 초과 되었으나 이것은 관년도 에서 이월된것으로 충당되었다 한다.

산하단체재정비
학생회서등록원접수

학생회는 산하단체등록 신청서를 오는 3월20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 예정이다.

전으로 학생회 기획부장은 예년에는 재정적 지원은 고려치 않은채 인정을 해주어져의 방치상태로 몰린는등의 여러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어서 시정이 촉구되어 왔으므로 금년에는 보다 건전하게 육성키위해 적극적으로 『써클』활동을 보장해줄수있는 단체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수부족의 타개책
—특수외국어학과 교수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사설)

신학기부터는 본 대학의 기구가 많이 개편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드러진것이 학부의 확장이다. 일찌 외국어학부라이 사학부의 2부로 구성돼 있던것을, 외사학부를법학부와 상경학부로 분리하고 교육학부를 신설하여 모두 4개학부로 되었다.

이처럼 비대해진 본 대학의 규모에 발맞추어 6층의 별관 강의실도 신축되었고 대학자체의 정적인 발전도 필요하나, 단한가지 교수진에관한 문제만은 아직도보태학이 극복해야할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외국어대학으로 설립되어 외국어를 위주로교육하던 본 대학내에, 부전공제도가 생기고 법정학부및 상경학부 그리고 교육학부가 신설되므로서, 어느 의미에서는 교육과정에있어 체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같이변모된 본 대학의 교육과육에 필요한 일반사회과학계통의 교수진의 문제는 그동안 대학당국의 노력으로 비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개선되어질 전망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어학부의 교수진 특히 및및 특수외국어 과목의 교수들이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외국어학부의 13개 외국어전공과에서 절반 가량인 특수 외국어 부문의 교수진은 대부분이 한무명의 한국인 교수와 현명 정도의 외국인 교수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저저는 저학년들도 구성돼있기 때문에 이상도의 수준으로 강의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4학년과저 학생수가 차게되면 숫적으로나질적으로나 현재의 교수진으로는 미흡한점이 많을것 같다.

특히 외국인교수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어학교육의교수훈련공으로 한사람들이 아닐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음부에 의해 한국에 체재한 경안 등등의 본래학의 강의를 맡고있는, 문자 그대로의 『현지인』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수있다. 그러므로 강의에 일관성이 없게되거나성의가 부족하거나하게될 우려가있는 것이다. 이런점을 고려해 본래, 본 대학으로서는 본래학이필요하는 교수를 스스로가 양성하지 않을수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셈이다.

김종배재단이사장이 밝힌바와 같이 『본 대학특수어학과의 학생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학시켜, 귀국한연후에 본래학교적으로 채용한다』는방법이 현재외국인교수의 미비점을 타개하는데가장편한 대책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이제한나라에 어떤 조건으로서 유학시키는가 하는것이 문제이다.

첫째는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찾게해서 자매결연이나, 문화협정을 체결토록 하여 그곳에서 유학생을 파견하도록 방침이어야겠지이다. 현재 본 대학은 해외대학과 8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중 6개가 『에스빠냐』의 계통의 대학에관꼬되어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동남아각국과의 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토록 노력하여 방법과 교수를 교환할수있는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유학할 당시의 내용이나 귀국후의 처우에 관한 확고한 보장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학이중의있부를 대학당국이 보조해 주는가 아니면 그곳 대학의 장학금을 얻을수 있도록 주선해 줘야한다.

이처럼 부족되는 한국인교수의 보란을위해 본대학졸업을 유학시켜 교수로 채용한다는 자가양성과 초빙하는 외국인교수나 현재의 교수진의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않고서는, 이미신설된 특수외국어학과만 앞으로 신설되지도 모를 학과의교육은 그 본래의 목표에 도저히 미흡한 없으리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학당국의 선처를 바란다.

교과과정대폭변경

2차로 14명선정

펠룹럼서 작가기금
이범선교수에

「제 · 쥴럼」 한국본부는 지난 3월 3일 이범선 본대학 문화부지도교수에게 「작가기금」 15만원을 주었다.

이 기금은 보다 좋은하고 좋은 작품을 낼수있기 위해서 매년 2회에 걸쳐 우리나라의 우수한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사고」

수습기자모집

본 외대학보사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편집진을 보강코보다 참신한 신문제작에 노력하고져 다음과같이 수습기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응시자격=본대학 1학년 재학생 남녀
▲제출서류=이력서 1통, 졸업증명서 1통, 사진 1매
▲시험과목=①영어 ②논문 ③일반상식④기사작성 ⑤적성검사 ⑥면접
※적성검사와 면접은 1차합격자에 한함. 기한자세한내용은 내사 문의할것.
▲원서마감=3월27일 17시
▲1차시험=3월29일(토)13시
▲최종합격자발표=4월7일

1969년3월18일

이번 호부터 교수와 재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은「칼럼」을신설,또는 변경했아오니 독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오늘의맥박란신설
사상에맞춰 신설된 대학생의 소견을 피력하려한 시론 오늘의 맥박 란을 본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번갈아 맡아 집필한다 2면에 게재되며 매주 1회 발행한다. 교수님들의 격조높은 문제제기 및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새로생겨난 칼럼이다.

「발언대란」을확장
다른 고정 칼럼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개방되며 매주 1회 발행한다. 학생들의 의견 및 문제제기 및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새로생겨난 칼럼이다. 학생들의 의견 및 문제제기 및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새로생겨난 칼럼이다.

학생사진작품모집
사진작품을 모집한다는 것은 제목을 붙이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다. 사진은 흑백 및 컬러 사진 모두 가능하며 사진에 대한 설명을 붙여 주시면 게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출된 사진은 본보의 면의 「본보」 코너에 연재되며 게재된 사진은 소정의 게재료를 드립니다.

외대학보사

민속경연대회등 다채롭게 계획

학생회 15주년기념행사일정 결정
작년도 결산 내용도 발표

본대학 학생회는 지난 3월13일 위원회를 열고 개교 15주년 기념행사의 일정을세웠다.

4월20일 개교기념일을전후해서 약 1주일간 열릴 이번 행사는 예년에 비해 훨씬다채로울것으로 예상되는데 학생회는 재학생들의 많은 『아이디어』제공을 바라고있다.

행사기간동안에는 가능한한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참여하게 하기위해서, 오전수업만을 한것을 계획하고있는데 주요일정은 보면 각국민속경연대회, 서강대학을 비롯한성심여대, 서울여대등 초청경기 『포크 · 댄스』, 가면무도회, 『보렐』연주발표회, 명사초청강연회, 문학의 밤등 10여종 목의 행사가 있게된다.

그런데는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뜻에서 방송 음악회를 3월 18일 본관 107호실에서 갖고 25일에는 『나사 · 코리아나 빕』을 초청, 영어 손국을 가지며 27일에는 신입생과 타대학생들의 뜻이바는 제목의 교양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따라서 신입생환영 야유회는 오전4월초순경 있게된다.

한편 지난 3월 17일에는 1968년도 제2학기 학생회비 결산보고 및 내역을 보았으는데 그 주요 내역을 보면, 모의 『올림픽』대회에 28만4천5백원 산하단체보조비 7만6천원모의 『유네』총회에 10만원등 84만6천60원으로 약

어학은 수단이고 목적은 돈버는데…

○…외학시험, 편입시험, 졸업식 입학식, 수강신청등으로 일년중 가장바쁜나날을 『보내야되는 교직원들에겐 신학기초를 『즐겨기』라고 말말…

김석주 교무처장은 『이번 중앙대학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만큼 일찬사 고없이 치루고 장리를 원활 시작하게된것은 무리에 가까웠던일』이라고 말하고, 밤을 새우며 꼭전은 다하는 직원들을 치하하면서 『그러나 이들이 노력이 재학생들의공부하는분위기를 높이는데 쓰이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될것』이라고 재학생들의 보다높은 각성을 재산 당부했다.

○…『렐룹럼』 연례 총회가 금년도 연한국서 개최 된다는 소식이 끝자자 한국국룹의 외국어 빈약점이 입기시작했는데….

『일간신문에 발표된 번역위원명단에 본대학 전임교수이 (사)이 하나도 없어 서운했다』고 말하던 재학생 K군은 『그래도 우리대학은 어학중심이니까…』하면서 자위….

일본의 『가와바타』씨가 노벨상을 받은것은 일본문학계에 있어 세계진출태로이라는 아시아인의 시기에 한번 이상이 되는 노벨상을 영성하는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본대학으로선 간과할수없는 중대한 문제로 삼아야 할뿐도하고 우리말 우리글을 모르는 외국어 학문은 있을수없는 전리가 새삼 되새겨 지기도….

○…하인어과의 L강사는 『나는 해마인어과를 택했나』하는 글을 신입생들로부터 모았는데…. 대부분이 한국의 종남아진출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부여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과의선택이유를 들어 이는 상과대학이나 공대에 지원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에 어김없이 들어맞는셈.

역시 사회진출과 떼어놓고 생각할수없는게 전공학문의 선택이지만 이들의 진출의욕을 상실시키지 말아야는 책임은 교수나 선배들이 무겁게 맡아야 할것같다. L강사는 『마인어과의경우 1학년이 지나면 전공과목에 회의를 갖는 학생이 많지만 이들에게 확고한 신념과 진보를 제시해주면 자발적인 연구열이 의외로높아진다』고 말하면서 지금 2, 3학년의 예가 바로 이런상태라고설명….

○…발관이 문공원에 따라 공부할 강의실을 잃수있게되어 새학기 기분이 들떴다는 이들에 비해 상처이 가장 수수한 『프랑 스』어과 재학생에게수여하는 분문동우회 장학금이 올해는 염종규교(4)에게주어진다.

동 장학금 전달식은 3월20일, 오후 1시에 거행될 예정이다.

「말」정부서 도서기증
「외국서적전시회」에 출품

「말레지아」 문교상이 기증하는 서적 3,200권이 지난11일 주한 「말레지아」 대사 「슬탄」씨를통하여박슬음학장에게전달됐다.

한편상대(3)서기 평원 이날희기 중서에서 박학장은 「대대인들의 실력으로서 보답하리라」고 감사의 뜻을표했다. 이들서적은 본대학 개교15주년기념행사의 하나로거행될 「외국서적전시회」에 전시도 될것이며 11일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비롯한 15개국의서적들이 보내져 왔다

정병준교수도미
박사과정밟으러

65년도 「하와이」 대학에서 영문학을 연구한바 있는 정교수는 약 1년간 미로부터 「쉐익스피어연구」를 교부등교육국장, 총학대학장을 역임한바있는 이상조박사는 평생, 정치에 관한다수의 책과논문을 저술한바있다.

50%가 등록마쳐
등록금… 2차는24~26일까지

3월 8일까지 마감한 금년도 1기분 등록상태가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서서히 등록상태가부진한 이유를 등록금 인상설로 인해 1차등록날자가지등록금책정이 늦어진 까닭이라고 보면서 2차 등록기간은 오는 3월24일부터 26일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말로마감
상징탑건립기금

본대학 말학과 졸문과가공등으로 빌리고있는 상징탑기금 모금은동이등문들의의국격인 협조보증은성과을리고있다 3월 15일현재 90여통문이 17만4천5백원을 보내와 50만원의 목표액중 36·9%에 이르고 있는데 이성금모으기운동은 오는 3월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징집연기원접수
20일까지,…생체

학생처는 오는 3월20일까지 재학생들의 징집연기원서를 접수한다.

1949년생부터 47년생까지해당되는 이 징집연기원은 신학기부터 학장이 해당본처자에 일괄적으로 제출하게되는데 징집생들도 전쟁대학교에서 전출입 송부시를 가게 오면 징집연기원을낼수있다.

본사사령

▲신현창 : 명 편집부장.
▲김정철 : 명 취재부장.
▲하은규 : 명 문화부장.
△문화부장 최형하, 기자 박태용, 기자 김상순 원에 의하여 해임함.

1969년3월10일자

5기ROTC입단
2주간 AT훈련도

본대학 5기 ROTC주보생 ○○명에대한 입단식이 3월10일 107호실에서 거행되었다. 입단선서에 이어 박학장의 격려사가있었는데 이들은 입단달일부터 김영발교관의 주관아래 2주간의 「AT훈련」에 들어갔다.

하수도

▲ 『국제 XX과』에서 『국제』자 제거.
—그과 국제루에 다시긴 그튼건가?
▲징집 연기원에 200원.
—종이서장에 현. 특피요, 특피!

「써클룹」 쟁취직전 짜느라고 이리저리…

국제문화교류의회고와전망

—펜·클럽의 번역사업에 즈음하여—

정 인 섭
<대학원장·영문학>

옛날에는 외국에 사람이 자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나 민족의식 신대에는 과했던만큼, 비교 입고싶사가는데 최근했기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문화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수있다. 즉히 우리가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오로는 상수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철학과 문학에서 느끼는 정신적 유산이나 종교와 교육에서 종기는 생활양식이나 한걸음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문명을 향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현재의 문화수준이란 것은 한 지역에서만 고립해서 그대로 발전했다고 볼수없고 이러지역사이에 서로 교류되어서 그 사조의 영향 속에서 서로 자극의 긴장으로 보아야 한다. 실로 근대문화사에 있어서 각지역의 문화가 급속도로 영향을주게되었는데 그중에서 제일많은 혜택을 현저한 각국의 언어를 통해서 번안되었는데,번안이란 원서를 충실히하나하나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응을 거칠게 주섬주섬 모아 간략하게우리말과 흡해진 값이 참기계였고, 또 유치원, 박물원들도 찰찰했으며, 모든학노힐기도 흥인이되었었다.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대단이 있었으나 역시 외국의 연구수준에서의지나 외국의 국력의 번역이었어도 충실치 못했다고 보고, 새로이 주비자국의 연구를 충실히 번역하고 또 신국가를바른 운동을 하기위해서 그실현을 위하여 『심혈두해』라는 구절을 조직했다. 그때서제 1회도 상간한것이 노서아 희곡 작가 「고골리」의 『검찰관』을 상연했다.

<<사진> The Creation of Adam, by Michelangelo Buonarroti, portion of ceiling decoration fresco, Sistine Chapel, Rome. <1508~1512.>

최초의번역다운번역은성경

샤마니즘+유교+불교→한국문화

배태에 인간이 창조되면서부터 문화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화가 만족스로 마음에 있을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만, 곳에서 곳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문화는 꽃을 피울 수 있을것이다.

옛날에는 외국에 사람이 자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나 민족의식 신대에는 과했던만큼, 비교 입고싶사가는데 최근했기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문화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수있다. 즉히 우리가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오로는 상수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철학과 문학에서 느끼는 정신적 유산이나 종교와 교육에서 종기는 생활양식이나 한걸음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문명을 향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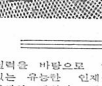
그런데 이와같은 현재의 문화수준이란 것은 한 지역에서만 고립해서 그대로 발전했다고 볼수없고 이러지역사이에 서로 교류되어서 서로 자극의 긴장으로 보아야 한다. 실로 근대문화사에 있어서 각지역의 문화가 급속도로 영향을주게되었는데 그중에서 제일많은 혜택을 현저한 각국의 언어를 통해서 번안되었는데,번안이란 원서를 충실히하나하나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응을 거칠게 주섬주섬 모아 간략하게우리말과 흡해진 값이 참기계였고, 또 유치원, 박물원들도 찰찰했으며, 모든학노힐기도 흥인이되었었다.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대단이 있었으나 역시 외국의 연구수준에서의지나 외국의 국력의 번역이었어도 충실치 못했다고 보고, 새로이 주비자국의 연구를 충실히 번역하고 또 신국가를바른 운동을 하기위해서 그실현을 위하여 『심혈두해』라는 구절을 조직했다. 그때서제 1회도 상간한것이 노서아 희곡 작가 「고골리」의 『검찰관』을 상연했다.

김광섭,함대훈,장기제, 조희순,서항석등이 가담해서과거와같은 무책임한 외국문학연구와 번역과 문단소식을 유형 연구,유형번역, 유형소식이라고 해석해서 한국문단 출판계에 유행하던 무책임한 외국물의 번역과 소개를 속청하려했다.

이들이 주창하던 그운동은 새로운 연구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강습회를 열고 잦지는 신진해수들을 양성했다. 그후 『제동』의 『기념』과 『맥궂한원』이라는 시 작품 과 『커어리』의 『주정』, 영국 『미너드·소오』의 『무기와 인간』, 이태리 작가 『피란델로』의 『[illegible]』, 『세익스피어』의 『[illegible]』 등 이외에도 여러 사람의 희곡 작품

"이름보다는 내용의 변화를"

■……「깊이있는 외국어실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진전에 기여할수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취지로 내세워 세워진 외사학부■……의 의교과, 무역과, 국제경영과 국제간제과■……및 국제법률과등이 대학가구의 학장제회에■……따라 그명칭에서 「국제」자를 빼고 또 경■……쳐의교과로 변경되는등 을해는 모든면에서■……상황한 부분의 변혁을 가져왔다. 그러나과■……의명칭변경이 곧 발전을 의미한다고는 할■……수는없지만 외국어학부에 비해 경시당해왔■……다는 외사학부가 명칭학부, 상경학부로 나■……처여서 「제법」이강화 한 단계에 들어 섰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이름이■……바뀌는 바람에 노트의 표지를 바꿔야야 했■……다는 전외사학부의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할수있는말」들을 나눠봤다.



좌 담

사회=재학기를 맞아 바쁜시점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자리를 마련한것은 이름은좋은데 제구실을 못했던종전의 외사학부가 법정, 상경학부로 나뉘어졌다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됐다고 하을려 명칭변경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파악와 비교해보고 결지어 생각해보자는데 그목적이 있읍니다. 과명칭의 변경자체가 아기시키는 문제는 없겠지만 이를 하나의 발전을 위한 정비라고도 할수있겠고 또 별특히 이없이 기구확장의 일환으로 그저 이름만 갈았다는 해석도 있을수 있겠읍니다. 어떻습니까? 과명칭이 바뀌어지니…

▲김=과거의 국제행정과는 그 설립취지가 이상론에 그치고 만 느낌이었고 현실에 맞지않았단고 대부분의 학생이 생각을 해왔었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국제」자가빠진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개가 환성하고 있네굳요.

▲백=행외과의 경우는좀 다릅니다. 제학생졸업 상담수가 과명칭변경을 반대하고 있더군요. 「외대외교과」이기때문에 들어왔지 타대학의 정외과 같으면 다른과를 택했다는겁니다. 특수성을 없지 않을가 하는 우려이긴 합니다만…

▲함=저는 경제과로 된것이 오히려 절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넓은분야에 빠질수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만 사실 경제과 1회라서 그했을지는 몰라도 일관성 있는 커리큘러럼을 늘고대해오면 좋겠읍니다. 이기회에 4학년기지 변함없는교과명을 새워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네, 그런소문이 있긴 했었읍니다만 그렇게대해선 교수님의 확실한 해명을 들었읍니다. 문교부의 행비지시가 있기전부터 국제행정, 국제경제학 이라는것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4년간 대학에서 배울만한 것이며 정통한교수와 전문서적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검토되어왔다는 겁니다. 이밖이 사실이라면 늦기는했지만 당국서도 신경을 써주었다는것은 고맙게 생각해야 겠읍니다. (웃음)

사회=신경을 써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에는 신경을 안데 주었다는 말입니까?

▲김=그렇죠. 외국어학부에비해 경시를 받은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년경제문에 표면상 서리를 맞게 됐읍니다. 이수과목이 대폭 수정되었기때문에 4학년은 이중 사업을 지게 되었으니까요.

1학년부터 국제관계론, 국제경치학이외를 듣다가이제와서 통계학이나 「시라틴니하는것을 들어야」 하니 말입니다.

▲함=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 희생당한다는 말도나올법하군요.

▲함=그렇지만 졸업을기할수있는 좋은 기회라고봐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김=이제와서 배울만한 것이며 정통한교수와 전문서적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검토되어왔다는 겁니다. 이밖이 사실이라면 늦기는했지만 당국서도 신경을 써주었다는것은 고맙게 생각해야 겠읍니다. (웃음)

사회=신경을 써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에는 신경을 안데 주었다는 말입니까?

▲김=그렇죠. 외국어학부에비해 경시를 받은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년경제문에 표면상 서리를 맞게 됐읍니다. 이수과목이 대폭 수정되었기때문에 4학년은 이중 사업을 지게 되었으니까요.

1학년부터 국제관계론, 국제경치학이외를 듣다가이제와서 통계학이나 「시라틴니하는것을 들어」야

Photographic Exhibition... (열정)

○……Caprice (제멋대로) 라고 불리 우는이……○
○……사진은 인화시 조화에 의한것인데사……○
○……전에 있어서의 시각적인면을 강조한……○
○……것이다. 100W의 광원은 피사체의……○
○……뒤에있었고 인화는 필화방법을 택하……○
○……였다. Bill Baron 작F=5.6 T=1/60……○

도이취어과 보이체크

개교15주년 기념행사로 독어과가 기획하고있는 「G·비죠너」 원작 「보이체크」는 18C중엽의 한 막극으로 널리 상연되는 작품이다.

현대의 게급의식과 빈곤의 해독에서 돌파구를 찾으며 애쓰다가, 권력은 할선한 내인의 처를 살해하게 된다는 내용의 「뮤지칼·드마마」로써 성불이 직접 작곡한것과 안무를 겸필인정이이체씀다.

「먼저 재미있다는점과 사회불합리, 빈곤상등 현대 화시키기가 용이하다는점에서 선택했다」는 이저전서는 「대학생의 연극이라야 고작 학예회정도라는 오명을 씻기위해 과감한 시도를하지만 제반조건으로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스탭그과><캐스트>

안무 (노경수), 무대감독 (김창식), 비슬 (강병옥), 의상 (이현순) 보이체크 (김상길), 마리 (정순옥, 명은신), 앙드레 (유광웅), 하우프트만 (최영신), 의사 (김충남,)

프랑스어과 의무의 희생자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성을 다룬 불란서 현대작가 「장샤르·이오네스코」의 「의무의 희생자」는 한 사회경관 (이재철) 이발인 체도차 쉬베프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전개된다. 너무도 관악한 한희생의 장요를 담하는 쉬베프.이사실을냄할하게 바라보는 마드렌느 (김인숙) 인간의 존엄성을유지발는 행위에서 찬하고 경관을 살해하는 니콜라 (권오민) 계3자로써 극을 전행시키는 마담 (이장렬) 등 5인의등장인들이 표시하는 현대심리극이다.

지난 13일에 기획, 서정철교수지도, 양홍권교수 연출아래 (성균관대) 현재 1회 3~4시간씩의연습을 하고 있으며 「한상과 뒷쥐의 죽음이라 대사의 연교성이 없어 역설이일을 뿐만 아니라 관객의 이해도 적정된다」고.

조연출에 이강웅, 무대장치에 이동신, 조명에 이덕기,의상에 안현,분장에 주동연, 소품에 강금희, 프롤프 뻬에이장림이 수고한다.

러시아어과 벗나무 동산

러시아어과 에서는 19C말 러시아 귀족자본의 몰락과정과 신흥계급의 대두를 그린 「안톤·체홉」작 「벗나무 동산」을 기획하고있다.

김학수교수 지도와한상명 (6회졸업) 연출로 하루3~4시간씩 강행군중인 「벗나무동산」은 전4막과중제4막으로써 부농벽라고 감상력이며 전형적 러시아 귀족인 여지주가 폭풍노도같이 밀려는 시대사조에 휩쓸려 마침내는 귀족 사회의 상징인 벗나무 동산마저 하인의 아들에게 팔아넘긴다는 줄거리로써 부농했거 때문에사라져가는 귀족사회의 몰락을 통경적인는으로 보고싶아으는 세계를 뒤계묘사해나간다

<스탭>과 <캐스트>

기획에 김승한 소도구, 의상은 국립극장 제공 「라 베보자마 (정남순), 아나 (박찬숙), 피라 (이현숙), 가에보 (김승환), 로빠헨 (김석민)

기념연극 학내연극

영어과 피크닉

금년으로 14번째 공연을 잔는영어과는 현이연극의 오랜전통을 자랑하고 있을정도로 관록이 대단하다. 금년에는 미국의「릴리안 헤이」작 「피크닉」을 선정,등장인 조선형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이는 「릴리안 홀맨」과 「필노빠」주연인 영화로도 잘알려진 작품이다.

<스탭>은 보면 조감독=홍성열, 기획=김정호, 무대감독=신철순, 분장=안경렬, 음향=김덕태, 조명=이봉민, 의상=김영희, 소도구=김대근, 장관순, 「포졸프트」=이홍렬 한편 「캐스트」진은 지원자가 많아「미불 캐스트」로 전을 정는데 주연인 Hal역에는 조성구군이 맡았고 Alan역 양병우, 홍성열, Howard=장재중, 조지평, Flo=박인서, 김현자, Potts=이영희, 서선석, Rosmary=심정순, Madge=강명숙, 심순진Millie=김종식, 이희연 Christine=천명옥양등이 맡고있다.

이젠 대화도 나누며

◇주 숙 희◇

피부에 스치는 파스한 바람에서 초창의 흔기를느끼며 합격의 열광을 누리고 의대에 들어선 지도 어느덧 일주일도 점이를 었다.

기대와 흥분으로 떨며 들던 학장님의 훈화, 지루하기만 했던 내빈들의 축사로 이어진 입학식도 끝나고 학교소개, 학점 취득요령, 수강신청,도서관이용 세분소개등으로 어리둥절하던 「오리엔테이션」도 끝나 이제사 겨우 눈을 「캠퍼스」로 돌리고는 경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을 신세없이 번득인다.

기대했던 그대로의 차분하고 안온한 캠퍼스의 분위기와 흥분하신 교수님, 선배님들의 따뜻한 눈길에 들떠있어 벌써부터 흡족영이 들어버렸다.

「캠퍼스」생활 일주일에특히 내민심을 끈 것은 아담하고 조용한 분위기이도 시관이다. 신관 아뜨층에자리잡고 있는 도서관을 유독 눈여겨 보아준 것은고등학교시절부터 계획해온무질한특서필을어기서라면 만족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때문이었다. 풍부하고도 알찬도서들,밝고 깨끗한 도서열람실,상식과 교양을 위한 삼고열람실을 보면서 뿌듯숙에 어느새 독서계획 4년의 청사진을 펼친다.

또 하나 불어볼 전공으로 택한 나로써 독과할수 없는 것은 신기 4층의영사실과 언어실험실이다. 「이어폰」을 꽂고 「다이얼」을 돌리면 듣고 말하고 녹음하고 교정하여 어서빨리 「프랑스어를배우고 싶다.

영화 「남과여」의 녀두나도 아름다운 주인공의 특소리를 생각해내곤 새삼스럽게 「프랑스불어공부에 의욕을 느끼기도 한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과달리 모든 행동을 자신이책임져야한다는 사실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지만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한자탑의 어엿한 의대인으로자라고 싶다. 우리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들을 마음껏활용하여 교양과 인격의 바탕을 굳히고 자유로운 외국어의 구사를 익혀 국내는 물론 세계무대로 진출하여 국제간의 장벽을 뚫고 세계에 의대를 심고한국을 심는 선자자의 대열에 끼이고 싶다면 외람된 생각일까? 그러나 동시에 방아치림 「캠퍼스」를누비며,호젖한 들길을 거닐며 동산에 올라 열련 대화도 나누며 젊음을 구가하는 것도때놓지않고 맛보련다.

마지막으로 보다 보람 대학생활을 위해 선배님들의 충심의 권고를받아만다.

(프랑스어과 1년)

교순수필

환멸의 비애

◎임진권◎ (교과과정연구실장)

이력지력 하는사이 대학 1년이 지나가고 2년째접어들때 그동안의 대학생활을 비경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환멸의 비애를느낀다」라는 말로 그동안의 대학생활을 평하는 학생들이 많다. 들어켜 보면 나나 내선배들이 더남내도이와같은 말을 했다는걸 생각하니 우리나라 대학생활과 환멸의 비애와는 상당히 전통깊은 관련을 뻗어 온듯하다. 대학에 들어오기전에 기대한 기대와 대학현실과의 차가 너무 심하다는 뜻으로 그러우한 들이 한다면 이차를 메울수 있는 노력이 학생의 입장에서나 학교의 입장에서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은 대학입시를 위한 절통같은년이 기간이다. 그기간이란 공부하는 세비중, 생활의 낭만을, 인생의 참뜻을 논할겨를도 가만한 입시준비에에서 불붙같은 사춘기를 불꽃로 심껴 버려야 하는 것이다. 입시경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년 한전으로 내년학생과에의 요구 속 사춘기의 여러가지 심리학적인요구가 이 시기에 해결되지 못한채 여러가지 갈등속에서 얽키고 설키여 크고막연한 기대로 변하여 대학에다 걸어 보는것이 아닐까. 자유로이 택하고 싶은 학점, 흥미한 교수의 지도, 생활의 낭만, 따지고 싶은 자아 내지 인생의 참뜻, 이런 부푼 기대를 갖고대학에 들어 오지만 현실대학은 반드시 이 기대와는 일치 할 수 없다.

자유와 낭만은 (심리적자아의 완성) 즐기는 것도좋지만 책임과 의무가 (사회적 자아의 완성) 미부과되는 대학이라는 곳 알아두어야 하지 않을가,물론이 말말과업성의 문제를 대학에 들어 와서 해결해 줄수 있는 그렇게 여유 있는 현실 대학은 아니다. 얼핏히 지켜야 할 교칙, 학 지여건 교육과정, 고교시절 보다 더 분발을 요구하는 학습열의 및 태도등 더 따지는 것이 많고 더 요구하는것이 많은 대학입을 알아야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신입생들의 부푼 꿈,높은요구수준 (Level of Aspiration)이대학생활의 기본 동력으로이용할수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한년이 미래 갈수록점점 낡고 퇴색해 가는 학습의욕이나 태도를 막을수 있는길은 이신입생들의 높은 꿈과 요구수준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채 현의이 퇴화게 한데 원인이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경계해야할 점은 신입생들의 높은 꿈과 요구수준이 대학에 들어와 일년을 지나는 동안 갑자기 저절되는 경우다. 현실에 비해지나치게 퇴화됐거나 높은 꿈이 산산 조각이 나기전에 이 꿈이나 요구수준을 현실에 알맞게 조화되도록 수정해 줄필요가 대학에선 있다.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이나 1년 동안의 수업기간을 통해요구수준의 적절한 조절을이 한 기도가 고등학교의학습에로 합되어야 하겠으며 학생의 비애에로 빠져 가는 길목을 막아서 조용히 현실대학에 적응하도록 인도할수 있는 알뜰한 들봄이 필요한 것이다.

교순수필

생명력 있는 4년을

◇한 기 창◇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같다. 적어도 내경험은 그렇다. 이제,항상 앞만을 꿈꾸한 의대의 하얀「벗지」를입고 가벼운 흥분하게 느끼미 이글을 쓰려고 하니금년 들어 최초로 나를 가슴깊이 울렸던 그 아름은 기억조차할 수없는 입학에의 기쁨이 커다란비중을 가지고 나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나를 함리화시키고 있음을 느끼는 이야기다. 가끔 어른들을 통해 듣는 내 어릴적 이야기에서,이다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는 유치원 선생님의 질문에 난 귀엽게 뺨점을 지고 곡 「외교관이 되겠어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누구의 암시를 받았는지 어떤지는 알수없지만 아무튼 난 아주 어릴적부터그 발원을 품경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커단 희망도 결국은 한장의 종이쪽지에서 실현화될 수없는 꿈으로만 끝난것같던 지난 2월 어느날은학 결의 집에서 친구들에 둘러싸여 신은정말 개새끼라고 을분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결망속에서 난 우연히 의대에관한 이야기를 듣게되고 그것은 조금씩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의도록이면 의대에서반공부심히 옷어넘긴기억이 살아 오르고 유리상자속 발발이의 서랍든 논문,뒤로 회전 반복해서 신너머면 숲속의 아침을 통경하는과 밤새의 뜸부림같은 것들이 생각키우면서 자유의 흔든속에 빌겨질 이상 주비는그 무심시를 바로 잡고다당에 발을 붙이고, 살아보려 애써아한다고느낍니다.

그래서 지난겨울 뒤는이마 탑에 뷔뚤리는기리는 필요 없었는 회의의 자체를 음미할수 있었음에 나는 이제 날마다 새로운생명을 얻게 우는 나무로부터 생활의자세를 배우려 합니다.

세월이 가져오는 싱그러운 내음은 훗날부회한다는게 하나의 비롯처럼되어갈 때마다 산철학의 태련빛갚과는 전연 다른이야기를 할것이며 12년의 긴 세월을 통해 닦아온 우리의 정서,그리고 이성—내세울것 이 없다고 겸손으로 대하기 보다는 내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곳에서의 행동 또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 내부의 필요에 의한것 들이니 자기가 주관을 두 뼛이 하여 생활하기만하면 되리라는 뼛행아리 지성인으로서의 자고마한 공지가 있어야 할것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교문을 나서는날까지 밤새연구 부단 장리실에서 찬바람이 부는날 유개실의산 보라에서 또 잔디밭 모퉁이에서 철려갈기의 용기와 노력을 일치 발아야 할것 같읍니다

(영어교육학과 1년)

오랫만의 바쁜시간

◇고 병 호◇

친우여!

간밤에 흩날리던 눈싸라기가 가볍게 내려앉은 창밖으로 실바람처럼 하늘을 휘갈아 내리는 「캠퍼스」의 뜻같이 따스하구나. 하얀옷의 설원을 마지막 겨울로보내준 하루사이로 계절의갈라은 비부로 느낄만큼 가까워졌나보다.

머리를 숙였던 기여를이 씨이해지고 새로운 희욕아 때 나는 또다른 당을 밟고 미 푸른 하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들도 일학루 일주일은 미리 생각은 했으나 예기치 못한 일치밤 달콤하고,새롭고, 놀라우며 기쁜, 그러한 기분속에서오랫만의 바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네.

피상적으로 볼었던 대학생활마는 알피 어엿의 첫 느낌은 역시 대학은 「아카데미」한 매력이 으뜸이며 앞을 깨뜨린새의 자유보다는 계획성있는 인내력으로 뜻새를 키워온 어미새의경험을 가까이 경험수 있다는것이었네.

가혹적인 분위기는 된큰 하여, 특회 언어실험실의시 선은 어학과 닮을 쌓아온 나에게까지도 충동을 일으켜 신입생 환영회날,번역소리 흩날리가 가랑비를뿌리는 바람에 악속된장소에 도였을텐 등에서는 뜨거운 김이 올랐다.

마음껏 즐겨 음을 퍼붓다가 신입생들의 영리히씨는 논등자에 시선이 맞았을때 문득 나는 희밀건 계줄의 고목처럼이나 쌓 쌓해짐을느꼈다. 그들의 얼굴은 본홍빛 희망에 벅차있었고 그저 해활하고 의욕리이고심상인권음그를의주위인의 낭만이 넘쳐고있었다. 차츰 칠흙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현화를 출실히 보내겨 줏뜻다는자적감에 몸을 떨었다.

이제 또 여월이 지나면 연례행사처럼 신입생환영회이이날 것이다. 그때면 나는 또 옛날의 서글픔을 되씹을게다. 사랑스럽고 귀중한 내 후배들에게 해 이런 이미하여 공지와 자신을 갖고부한한기쁨속에서 후배 박연한 서글픔을 느꼈어야만 했던가를 말해주고 싶을 맞아들이는 선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친우여!

「오리엔테이션」첫날, 학생처장님의 말씀을 까마귀 떼처럼 새까맣게 다 잊었는데 「자유는 고독하다」는한마디가 아직도 나의첫가슴 남아 과거와 현실의 위입 비이되는 같이드는구나.

우울의 빛같이나 권태의 표정이 노출되었 심한 「플톡스」속에 거리의 삶인처럼 방황하면 시절이여, 「박스·데미안」과 「싱클레어」의 우정의편지에 흥미를 느껴 얼굴이지 몇장 만 뒤적거리면 기억이에, 소녀 「베아트리체」의 환상에 이끌리면 생각이여…

친우여!

현실이 내리는 장가에서 다는 어설프게 비침 또하나의 초상화를 발견했네 「쉽리 딕아섬」이 어려면 오래 전부터 서시의 밑려은 대학생활은 모든일대전해주게!

그래서 바다로 올려 나가는 「트리빈」 소라울을을 반주로 하여 「캠퍼스」의아기자기한 얘기와 무한한지식의 물결속에 내 조그만 기쁨의 이파리를띄워주게!

나는 「프레시맨」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네!

노련하지도 않고 씨들지도 않은 가사가 있으면 화치림 반짝거리는 학문의 진리와 젊음의 낭만을 「캠퍼스」에기대한다네.

친우여!

그럼 오전시가시시 빛하여 박걸리로 그동안의 사연을 애기할 날을 기다리세

(행정학과 1년)

그리워하던 개선문

◇권 계 자◇

우리의 주위에서 무한한 힘을 가지고 소생해오는대 자연의 흐름을 온 마음으로 거울이 삼고 온 몸으로 느껴보았기에 대학입시는 관문이나 탄조로운 감회의 반복이 또 타인의의지가 무편의도가슴아파했던 일년간.

그동안두는 좁은문—모든 가슴마다 내내 그리워하던 개선문이었한니다.

대학으로 향하는 에지로 초등초등한 눈 자의 젊음들이 오직 찬란한 그날의 영광을 은꿈아 기다리며낮엄이 쌓이고 눈덮이 들어지면 슬한 날들을 그림게 목목히 학길피마다 힘을잠재우며 오랜의 불길치렴주 는 감동처럼 내발음치면그 배음의 질은 또한 저주와 고난의 쇠이었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써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자랑스레 생각하며 3월의 바람과 함께 밀물처럼 안겨오는 새 희망속에 태양처럼 빛나는 기쁨을 펼칩니다.

그아아울려 대학생활의진평한 의미도 보아야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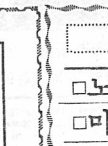
누군가가 고등학교의 교복은 수의라고 말했을때, 무심히 흘러넘긴 기억이 살아 오르고 유리상자속 발발이의 서랍든 논문,뒤로 회전 반복해서 신너머면 숲속의 아침을 통경하는과 밤새의 뜸부림같은 것들이 생각키우면서 자유의 흔든속에 빌겨질 이상 주비는그 무심시를 바로 잡고다당에 발을 붙이고, 살아보려 애써아한다고느낍니다.

그래서 지난겨울 뒤는이마 탑에 뷔뚤리는기리는 필요 없었는 회의의 자체를 음미할수 있었음에 나는 이제 날마다 새로운생명을 얻게 우는 나무로부터 생활의자세를 배우려 합니다.

세월이 가져오는 싱그러운 내음은 훗날부회한다는 게 하나의 비롯처럼되어갈 때마다 산철학의 태련빛갚과는 전연 다른이야기를 할것이며 12년의 긴 세월을 통해 닦아온 우리의 정서,그리고 이성—내세울것이 없다고 겸손으로 대하기 보다는 내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곳에서의 행동 또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 내부의 필요에 의한것들이니 자기가 주관을 두뼛이 하여 생활하기만하면 되리라는 뼛행아리 지성인으로서의 자고마한 공지가 있어야 할것같기 때문입니다.

(사범대학 1년)

대중속의 나



◎김 영 애◎ (마이어과 4년)

먼 후일, 보다 아람찬 결실을 맞기위해서는 4년의과정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지여야 부지런히 일거름들이 현재아한다고 깨우쳐주고싶다. 하나 이 준비를 위한과정에는무엇보다도 「대중속의 나」라는 철학은 강조해려야겠다.

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보다내가 나자신에 부고럽지않게 살라고 말하고 싶다. 어제에 집착하는 바보기되 지말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부탁하고 싶다. 하나의 참된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은 그 이전에가 됩보다는 내부로 만을 책임과 인내가 뿌려졌다는 것을 일깨주고 싶다.

이제 또 여월이 지나면 연례행사처럼 신입생환영회이이날 것이다. 그때면 나는 또 옛날의 서글픔을 되씹을게다. 사랑스럽고 귀중한 내 후배들에게 해 이런 이미하여 공지와 자신을 갖고부한한기쁨속에서 후배 박연한 서글픔을 느꼈어야만 했던가를 말해주고 싶을 맞아들이는 선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문화단신

불교정기법회개최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서울지부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매주토요일 오후 4시 세운상가 다동 풍전아파트4층삼보빌회장에서 정기법회를 개최하다.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람.

방송강습회개최

한국시청각 교육 문화원 (원장·이강영씨) 에서는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향상을위하여 제27차 방송요원 양성 복習 강습회를 개최한다. 동 습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현서마감은 3월 21일.

Hen's Party

현대 일본어 회화
<한국외국어대학 일어과장>
전기정교수저
3백20면·2백20원

기초 일본어 가이드
전기정교수저
1백80면·2백50원

신학기 교 재 안 내

□노 한 사 전	동완 저 441면 500원	□서한사전	에스빠냐어과편 680면 1,000원
□마인어단어집	김재경 저 169면 150원	□체 육개론	홍순태 저 169면 250원
□Selection from Wordsworth	최정우편 309면 400원	□대학노어	러시아어과편 281면 550원
□국제정치학	홍종현 저 200면 250원	□이딸리아어사전	이딸리아어과편 800면1,200원
□초급이태리어문법	허인 저 255면 300원	□교양영어	영어과편 300면 650원
□The 20th Century English Novel	김동선편 202면 400원	□중국어(하)	노동선 저 265면 300원

한국외국어대학 출판 공보부

DP&E

자종사진촬영이라면 날로 그기술이 향상, 빌전하는 「그린」을 꼭찾아주십시요.

—추종을 불허하는 최신의시설, 최고의기술은 당신의 사진솜씨를 만족하게해드릴것입니다.

※외대생에게는 특별할인 합니다.

그린현상소

◇외대앞◇ 전화(96)1809